16-43호 2016.11.9

# 현안과 과제

## 최근 산업별 경기순환의 특징과 향후 전망

### - 제조업·서비스업 경기 활성화, 건설업 연착륙 유도

현대경제연구원

■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견해임을 밝혀두며, 보고서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최근 산업별 경기순환의 특징과 향후 전망

### - 제조업·서비스업 경기 활성화, 건설업 연착륙 유도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산업별 경기순환 현황과 특징 ····· 2

3. 산업별 경기순환 전망 ····· 8

4. 시사점 ····· 11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동향분석팀 : 김 천 구 연 구 위 원 (2072-6211, ck1009@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최근 산업별 경기순환의 특징과 향후 전망
### - 제조업·서비스업 경기 활성화, 건설업 연착륙 유도

### ■ 개 요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란 경제 활동 수준이 장기균형에서 벗어나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을 뜻한다. 경기순환은 회복기, 확장기, 후퇴기, 수축기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경기순환은 경제 전체 뿐만 아니라 각 산업별로도 존재한다. 산업별 경기순환은 산업 고유의 특징, 정부의 정책 변화, 외부 충격 등에 영향을 받는다. 본 보고서에서 산업별(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경기 순환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경기 흐름을 전망하였다.

### ■ 산업별 경기순환의 현황과 특징

(제조업) **제조업 경기는 본격적인 수축국면에 진입하였다.** 최근 제조업 경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제조업 경기는 2012년 4분기까지 수축국면을 보인 이후 2014년 2분기까지 짧은 확장국면에 진입하였다. 이후 제조업은 수축국면(후퇴기→수축기)으로 경기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조업 경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제조업의 경기변동성이 줄어들었다.** 경기변동분의 표준편차로 경기변동성을 정의하면, 경기변동성은 1990년대 4.8p, 2000년대 3.5p에서 최근 1.5p로 크게 축소되었다. **둘째, 수축국면에서 제조업의 경기침체 폭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확장국면 기간 동안 제조업 평균성장률은 과거와 유사하다. 반면 제조업이 수축국면에 위치할 때 평균성장률은 2000년대 4.5%에서 2010년대 2.5%로 줄어들었다. **셋째, 제조업 경기순환의 지속기간은 확장국면이 줄어들고 수축국면은 길어지고 있다.** 제조업 확장국면의 평균 지속기간은 1990년대 18분기, 2000년대 13.5분기, 2010년대 7분기로 줄어들었다. 반면 수축국면의 평균 지속기간은 1990년대 4분기에서 2000년대 8분기, 2010년대 8분기로 늘어났다.

(서비스업) **서비스업 경기는 수축국면이 지속중이다.** 서비스업의 경기순환은 2013년 1분기까지 수축국면을 보였으며 이후 2014년 3분기까지 짧은 확장국면에 진입하였다. 이후 서비스업의 경기순환은 수축국면(후퇴기→수축기)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

최근 서비스업 경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경기순환에서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의 구분이 거의 사라졌고 경기변동성 역시 줄어들었다.** 서비스업의 경기변동성은 1990년대 2.2p, 2000년대 1.2p에서 2010년대 0.2p로 크게 축소되었다. **둘째, 확장국면이 줄어들고 수축국면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서비스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업 확장국면의 평균지속기간은 과거보다 줄어들은 반면(1990년대 : 18분기, 2000년대 : 14분기, 2010년대 : 7분기) 수축국면의 평균 지속기간은 늘어나고 있다(1990년대 : 4.5분기, 2000년대 : 7.5분기, 2010년대 : 8분기). **셋째, 경기 확장 국면 진입 시 서비스업의 경기상승 모멘텀이 거의 사라졌다.**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국면에 위치해 있을 때 서비스업 평균성장률은 3.6%로 2000년대 5.3%에 비해 1.7%p 급감하였다. 특히 확장국면 기간동안 평균성장률(3.6%)은 수축국면 기간동안 평균성장률(2.8%)과 비교하여도 큰 차이가 없다.

(건설업) **건설업 경기는 확장국면에 위치해 있다.** 건설업의 경기순환은 2010년 4분기부터 2015년 2분기까지 19분기 동안 건설업의 장기추세 생산을 밑도는 장기침체를 경험하였다. 최근 건설업 경기순환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확장국면(회복기→확장기)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건설업 경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건설업 경기는 제조업, 서비스업 경기와 달리 나홀로 호황중이다.** 건설경기는 다른 산업들과 달리 부동산 활성화 정책 또는 규제, 선거 등 경기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최근까지 이어졌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건설업 경기는 제조업, 서비스업과 달리 확장국면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주거용 건물 건설 주도의 성장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이례적으로 늘어난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으로 주거용 건설 경기가 다소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상업용과 토목 부문의 경기순환의 확장 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이다. **셋째, 건설업은 IMF 외환위기 직전 호황기 이후 가장 큰 호황 국면에 진입하였다.** 1990년 이래로 건설경기가 가장 큰 호황기를 맞이했던 기간은 주택 200만호 건설이 이루어진 1990년대 초반과 IMF 위기 직전 기간이다. 두 차례 호황기가 끝난 이후 건설업 경기는 상당 기간 침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 ■ 산업별 경기순환 전망

(제조업) **제조업 경기는 2017년 하반기 이후에 회복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제조업 내 유휴생산능력이 크게 존재하고 있어 제조업이 수축국면에서 벗어나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예상되는 글로벌 수요 회복 및 물동량 증가로 인한 수출회복, 상저하고의 국내 경기 흐름 등에 따라 제조업은 2017년 하반기 이후부터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업) **서비스업 경기는 수축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확장국면 진입 시에도 반등의 힘이 크지 않을 것이다.** 가계의 실질구매력 약화, 부동산 경기 둔화 가능성, 구조적 요인 등으로 소비 부진은 201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경제 내 불확실성 축소 등이 향후 서비스업이 회복국면 진입 했을때 반등의 힘을 좌우할 것이다.

(건설업) **건설업 경기는 2017년 하반기 이후부터 경기의 수축국면 진입이 예상된다.** 건설업 경기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주거용 건설의 경우 아직 기존 분양물량의 공사가 남아있어 당분간 건설업 경기 하락 가능성은 낮다. 2015년 중반 물량의 준공이 완료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2017년 하반기부터 건설업 경기 하락 및 경착륙 가능성이 상존한다.

## ■ 시사점

산업별 경기순환을 고려하여 경기 흐름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전산업의 경기순환 뿐만 아니라 개별 산업의 경기국면 판단과 경기특징을 이해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둘째,** 장기화 되고 있는 제조업 경기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출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서비스 업종의 성장성을 회복하기 위해 소비활성화대책 및 서비스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경기 급락 가능성이 상존하는 건설업은 부동산 시장의 수급 안정을 통해 경기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1. 개 요

○ 경제가 장기균형에서 벗어나는 현상인 경기순환을 산업별로 구분하여 현재 위치한 국면을 살펴보고 향후 방향성을 예측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

- **경기순환이란 경제 활동 수준이 장기균형에서 벗어나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을 뜻함**
  - 거시경제는 크게 장기적인 균형 상태인 경제성장(Growth)과 단기적인 균형인 경기순환(Business Cycle)으로 나누어짐
  - 이중 경기순환은 경제가 장기균형에서 벗어나는 현상으로 경기순환에 따라 가계들의 후생손실을 수반한다고 알려져 있음

- **경기순환은 회복기, 확장기, 후퇴기, 수축기 등 4가지로 구분**
  - 경기가 회복기에서 확장기로 이어지는 것을 확장국면, 후퇴기에서 수축기로 이어지는 것을 수축국면으로 정의
  - 경기순환은 저점에서 정점을 지나 다시 저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하나의 순환으로 봄

- **경기순환은 경제 전체 뿐만 아니라 각 산업별로도 존재하는데 현재 위치한 국면에 따라 산업의 생산, 투자 및 고용 등에 영향**
  - 특정 산업의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진입해 간다면 과잉 생산과 과잉 설비 등으로 인해 해당 산업의 생산과 투자가 위축되고 실업이 늘어남
  - 반면 산업 경기가 점차 확장국면으로 진입한다면 기업들은 미리 생산과 설비를 늘려 향후 예측되는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 **산업별 경기순환은 산업 고유의 특징, 정부의 정책 변화, 외부 충격 등에 영향을 받음**
  -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경기순환을 보이지만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경기순환의 변동성이 더 큼
  -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기 움직임과 상이하게 움직이기도 하며 정부의 정책적 영향에 크게 좌우

○ 본 보고서에서 산업별(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경기순환[1]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경기 흐름을 전망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산업별 경기 순환변동치는 통계청의 공식적 통계는 아니며 분석을 위해 저자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수치임.

## 2. 산업별 경기순환 현황과 특징

1) 제조업

### ○ 제조업 경기는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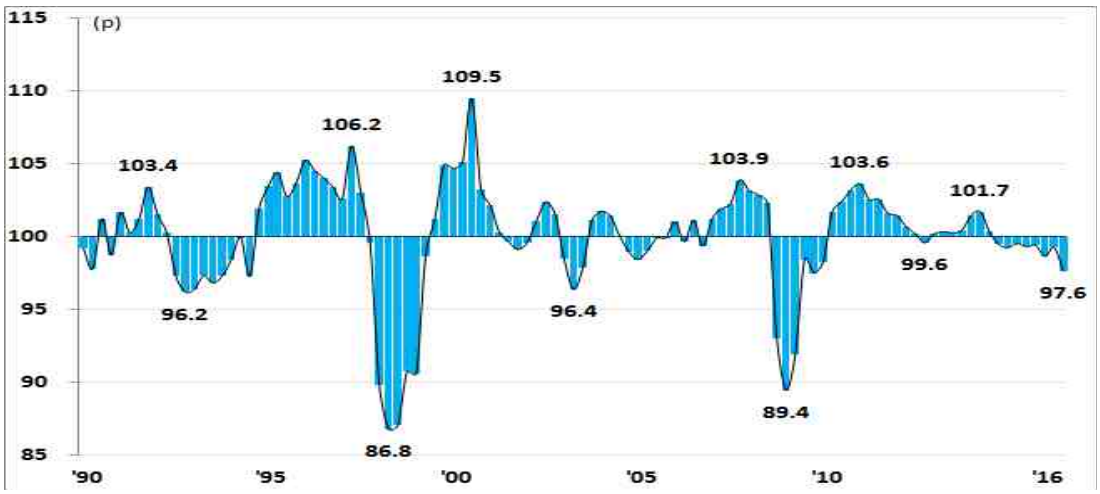
**- 제조업 경기는 2014년 2분기를 정점으로 수축국면(후퇴기→수축기)으로 진행**

· 최근 제조업의 경기순환을 살펴보면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 1분기를 저점으로 2011년 1분기까지 8분기 동안 확장국면이 진행

· 이후 제조업 경기는 2012년 4분기까지 수축국면을 보인 이후 2014년 2분기까지 짧은 확장국면 진입

· 최근 제조업 경기순환은 수축국면(후퇴기→수축기)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제조업 경기 순환변동치 >




자료 :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자체추정.

### ○ 최근 제조업 경기순환의 특징은 경기변동성 축소, 경기침체의 폭 확대 그리고 수축국면의 장기화 등임

**- 제조업의 경기변동성이 축소**

· 최근 경기정점과 경기저점 간 진폭의 크기를 살펴보면 약 3.4p로 사실상 경기정점과 저점의 구분이 불분명해짐

· 경기변동분의 표준편차로 경기변동성을 정의하면, 경기변동성은 1990년대(1990~1999년) 4.8p, 2000년대(2000~2009년) 3.5p에서 최근(2010~2016년) 1.5p로 크게 축소

**- 제조업은 수축국면에 빠졌을 때 성장률 둔화 폭이 과거보다 커짐**

· 제조업이 확장국면에 위치할 때 평균성장률을 산출하면 1990년대 10.4%, 2000년대 8.4%, 2010년대 8.1%로 과거와 최근 사이 큰 차이 없음

· 반면 수축국면에 위치할 때 평균성장률은 1990년대 1.6%[2]에서 2000년대 4.5%로 늘어났다가 2010년대 2.5%로 줄어듦

**- 제조업 경기순환에서 확장국면(저점→정점)이 짧아지고 수축국면(정점→저점)이 길어지는 현상 나타남**

· 제조업 확장국면의 지속기간은 1990년대 18분기, 2000년대 13.5분기, 2010년대 7분기로 줄어듦

· 반면 수축국면의 지속기간은 1990년대 4분기에서 2000년대 8분기, 2010년대 8분기로 늘어남

· 특히 2014년 2분기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기 하강 국면은 분석에 사용된 1990년 이후부터 기간 중 가장 긴 경기 하강 국면 지속

< 최근 제조업 경기변동의 특징 >

| | | 1990~1999 | 2000~2009 | 2010~2016 | 특징 |
|---|---|---|---|---|---|
| 평균 성장률 | 확장국면 | 10.4% | 8.4% | 8.1% | 수축국면 진입 시 경기 침체 폭 커짐 |
| | 수축국면 | 1.6% | 4.5% | 2.5% | |
| 경기 변동 | 경기변동성 | 4.8p | 3.5p | 1.5p | 경기 변동성 및 변동폭 축소 |
| | 경기변동폭 | 12.2p | 11.7p | 3.4p | |
| 지속 기간 | 확장국면 | 18분기 | 13.5분기 | 7분기 | 확장국면 지속기간 축소<br>수축국면 지속기간 확대 |
| | 수축국면 | 4분기 | 8분기 | 8분기 |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자체추정.

2) 1990년대 제조업 수축국면의 평균성장률이 낮았던 원인은 외환위기 시기에 성장률 급락이 포함. 외환위기 기간인 1998년을 제거할 경우 제조업 수축국면의 평균성장률은 5.6%임.

2) 서비스업

## ○ 서비스업 경기는 수축국면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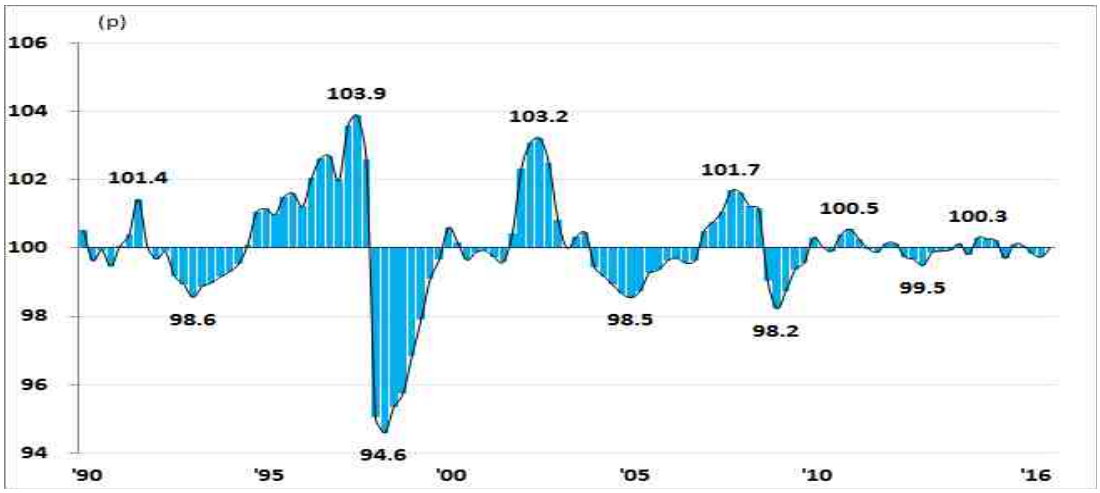
**- 서비스업 경기는 수축국면(후퇴기→수축기)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판단**

· 최근 경기순환을 살펴보면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 1분기를 저점으로 2011년 1분기까지 8분기 동안 확장국면에 진입

· 서비스업의 경기순환은 2013년 1분기까지 수축국면을 보였으며 이후 2014년 3분기까지 짧은 확장국면 진입

· 최근 서비스업 경기순환은 수축국면(후퇴기→수축기)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서비스업 경기 순환변동치 >




자료 :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자체추정.

## ○ 최근 서비스업 경기의 특징은 확장과 수축 국면의 구분 모호, 경기변동성 축소, 수축국면 장기화 그리고 경기 확장 시 상승 모멘텀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임

**- 서비스업 경기는 2011년 이후부터 경기순환 국면의 구분이 거의 사라져 경기순환 주기가 확실치 않음**

· 일반적으로 경기변동의 폭이 적은 것은 가계에게 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하지만 최근 서비스업 경기변동 축소와 서비스업의 추세적인 성장률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됨

- **서비스업의 경기변동성도 크게 축소**
  - 최근 서비스업의 경기정점과 경기저점 간 진폭의 크기를 살펴보면 약 0.9p로 사실상 경기정점과 저점의 구분이 없어짐
  - 경기변동분의 표준편차로 경기변동성을 정의하면, 경기변동성은 1990년대(1990~1999년) 2.2p, 2000년대(2000~2009년) 1.2p에서 최근(2010~2016년) 0.2p로 크게 축소

- **서비스업의 수축국면은 길어지고 있는 반면 확장국면은 축소되고 있음**
  - 서비스업 확장국면의 지속기간은 평균적으로 1990년대 18분기, 2000년대 14분기, 2010년대 7분기로 줄어듦
  - 반면 수축국면의 지속기간은 1990년대 4.5분기에서 2000년대 7.5분기, 2010년대 8분기로 늘어남

- **경기 확장 국면 진입 시 상승 모멘텀이 거의 사라짐**
  -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국면에 진입했을 때 서비스업 평균성장률은 2000년대 5.3%에 비해 1.7%p 급감한 3.6%임
  - 특히 확장국면 기간 동안 평균성장률 3.6%는 수축국면 평균성장률인 2.8%와 큰 차이가 없음
  - 즉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기에 들어서더라도 경기 반등 모멘텀이 거의 사라졌으며 서비스업에서 체감적으로 경기가 개선되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

< 최근 서비스업 경기변동의 특징 >

| | | 1990~1999 | 2000~2009 | 2010~2016 | 내용 |
|---|---|---|---|---|---|
| 평균 성장률 | 확장국면 | 8.0% | 5.3% | 3.6% | 확장국면과 수축국면 간 평균성장률 차이 거의 사라짐 |
| | 수축국면 | 5.4% | 2.9% | 2.8% | |
| 경기 변동 | 경기변동성 | 2.2p | 1.2p | 0.2p | 경기 변동성 및 변동폭 축소 |
| | 경기변동폭 | 5.8p | 3.8p | 0.9p | |
| 지속 기간 | 확장국면 | 18분기 | 14분기 | 7분기 | 확장국면 지속기간 축소 수축국면 지속기간 확대 |
| | 수축국면 | 4.5분기 | 7.5분기 | 8분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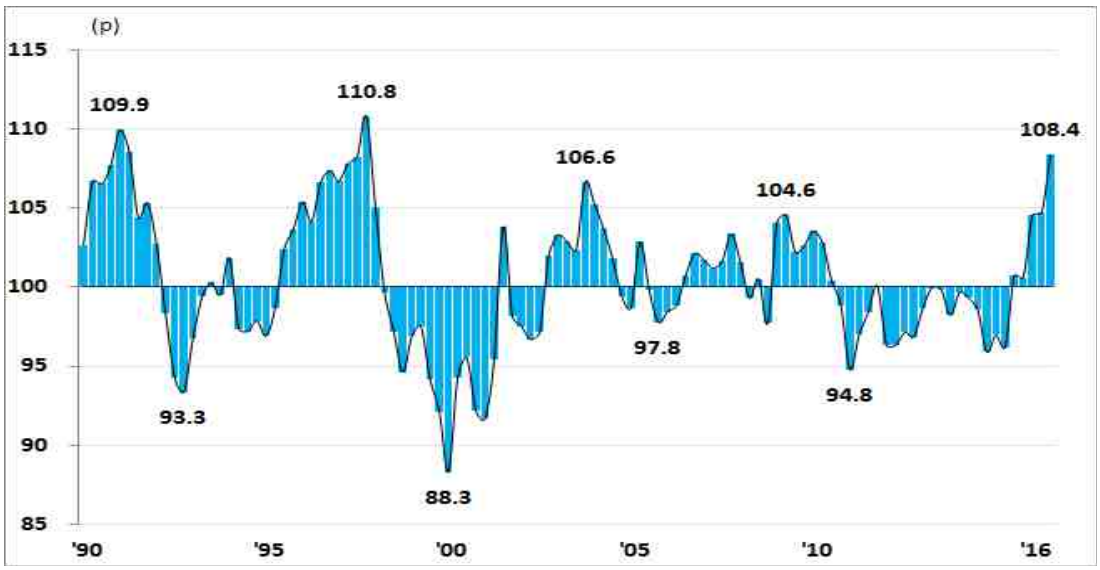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자체추정.

3) 건설업

○ 건설업 경기는 현재 확장국면에 위치해 있음

- 건설업 경기는 확장국면(회복기→확장기)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판단
  · 건설업의 경기순환은 2010년 4분기부터 2015년 2분기까지 19분기 동안 장기추세 성장률을 밑도는 장기침체를 경험
  · 최근 건설업 경기순환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확장국면(회복기→확장기)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건설업 경기 순환변동치 >




자료 :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자체추정.

○ 최근 건설업 경기 특징은 건설업의 나 홀로 호황, 주거용 건설 주도의 성장 사이클, 1990년대 말 호황기 이후 가장 큰 호황 국면 진입 등임

- 건설업 경기는 제조업, 서비스업 경기와 달리 나홀로 호황중
  · 건설경기의 순환주기는 타 산업들과 상이하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 선거 등 경기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
  · 최근까지 이어졌던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건설경기는 제조업, 서비스업과 달리 확장국면이 진행되고 있음

- **주거용 건설 부문 주도의 성장사이클 나타남**
  - 최근 건설업의 이례적인 확장 국면은 2015년 중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으로 인해 주거용 건물건설의 경기가 과열된 것이 원인
  - 이에 반하여 비주거용과 토목 부문의 경기순환의 확장 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

- **건설 경기는 최근 호황 이전 장기침체를 경험**
  - 건설업은 현재 호황 국면에 진입하기 이전에 2010년 4분기부터 2015년 2분기까지 19분기 동안 건설업의 장기추세 생산을 밑도는 장기침체를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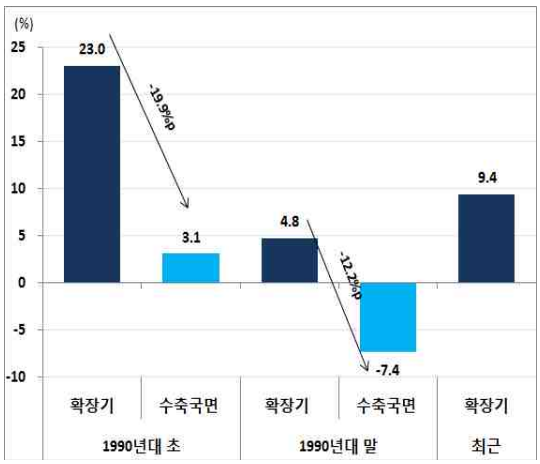
- **건설업은 IMF 외환위기 직전 호황기 이후 가장 큰 호황 국면에 진입**
  - 1990년대 이후 건설업의 가장 큰 호황기는 1990년대 초와 1990년대 말에 있었음
  - 1990년대 초반 호황기는 주택 200만호 건설이 이루어진 시기이며 1990년대 후반 호황기는 IMF 위기 이전의 호황기임

- **과거 경기상승폭이 지나치게 컸던 기간 이후 건설업의 성장률 급락을 경험**
  - 1990년대 초 건설업의 확장기와 수축국면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확장기 건설업 평균성장률은 23.0%에서 수축국면 평균성장률 3.1%로 -19.9%p 급락
  - 1990년대 말 기간에는 건설업의 확장기 평균성장률이 4.8%에서 수축국면 평균성장률 -7.4%로 줄어듦
  - 현재 건설업 경기가 다소 과열된 것은 이전에 부족했던 생산을 만회하는 측면이 어느정도 있어 성장률 하락 폭은 과거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

< 건설업 부문별 경기 순환변동치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 건설업 확장기 전후 평균성장률 비교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자체추정.

## 3. 산업별 경기순환 전망

○ 제조업 경기는 글로벌 수요 회복 및 물동량 증가 등 수출회복, 상저하고의 국내 경기 흐름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회복기에 진입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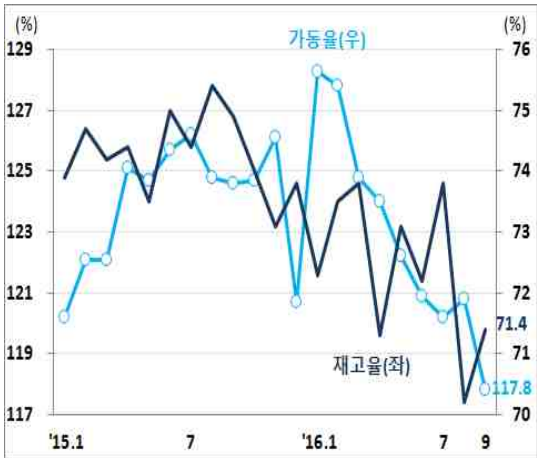
- **현재 수축국면(후퇴기→수축기)에 진입해 있는 제조업 경기는 아직까지 제조업 내 유휴생산능력이 크게 존재하고 있어 수축국면에서 벗어나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80%대를 상회하던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현재 70%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등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제조업 재고율은 2011년 이후부터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여 현재 120p대를 상회하고 있음
  - 평균가동률 및 재고율 등을 살펴볼 때 여전히 제조업부문에 유휴생산능력이 존재하는 상황

-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글로벌 물동량 증가 등 2017년에 예상되는 국내 수출 개선 요인은 제조업 경기에 긍정적**
  - IMF에 따르면 2017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016년 보다 0.3%p 높은 3.4%로 전망하였으며 세계교역 성장률은 2017년 3.8%로 2016년 보다 1.5%p 증가 예상
  - 글로벌 수요의 증가로 제조업 부문의 수출 역시 내년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제조업이 불황 국면에서 탈출하는데 도움

- **국내 경기흐름은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제조업 경기는 2017년 하반기 이후부터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기로 진입할 가능성**
  - 2017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2.4% 하반기 2.8%로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3)]

3) 2017년 한국경제전망(2016.9), 현대경제연구원.

< 제조업 재고율, 평균가동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 세계 및 국내 경제 전망 >

(%)

| | 2015 | 2016(E) | 2017(E) |
|---|---|---|---|
| 세계경제 성장률 | 3.2 | 3.1 | 3.4 |
| 세계교역 증가율 | 2.6 | 2.3 | 3.8 |
| 국내경제 성장률 | 2.6 | 2.5 | 2.6 |
| 국내수출 증가율 | -8.0 | -5.2 | 3.8 |

자료 : IMF, 현대경제연구원.

## ○ 서비스업 경기는 수축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확장국면 진입 시에도 반등의 힘이 크지 않을 가능성

**- 서비스업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2017년에도 영향을 미쳐 서비스업 경기는 수축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 가계의 실질구매력(실질임금, 취업자 수 등) 증가가 제약될 가능성이 높으며 저물가, 저유가 현상이 내년에 다소 완화되며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제약

· 자산 측면에서 최근 이례적으로 늘어난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 비교하여 가계의 부동산 수요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 부동산 시장이 둔화될 가능성

· 가계부채 문제, 인구구조 변화, 주거비 등이 여전히 구조적으로 소비를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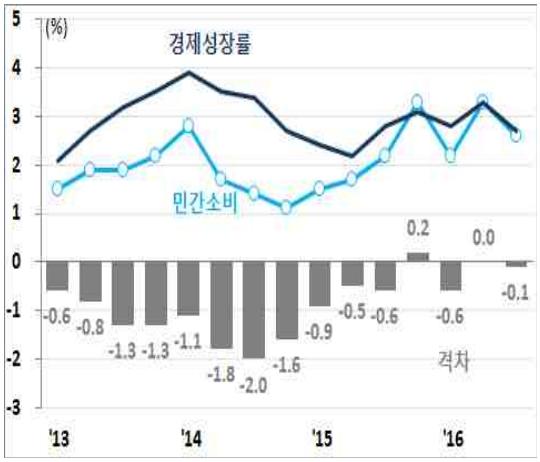
**- 서비스업 경기는 회복국면에 진입하더라도 반등의 힘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최근 서비스업 경기는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의 구분이 사라져 있으며 성장 모멘텀을 상실

· 확장국면에 진입하더라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못해 짧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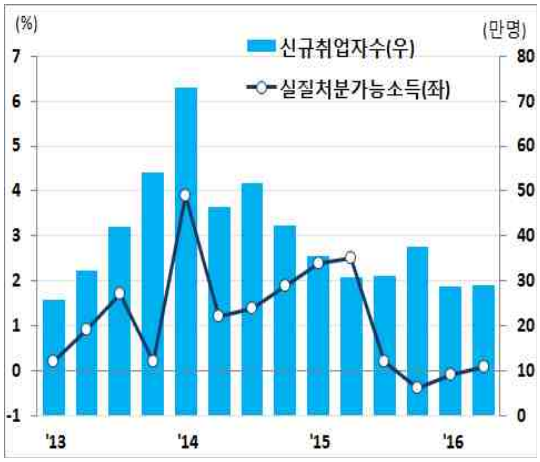
- **정부의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경제 내 불확실성 축소 등이 향후 서비스업의 회복국면 진입 시 반등의 힘을 좌우**
  -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대규모 세일행사가 범국가적 행사로 정착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소비 진작에 도움
  - 가계들의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면 가계의 소비심리 개선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

< 민간소비 및 GDP 증가율 격차 >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

< 가계 소득 증가율 및 신규취업자 수 >




자료 : 통계청.
주 :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이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 건설업 경기는 2017년 하반기 이후부터 수축국면 진입 및 경착륙 가능성이 상존

- **건설업의 최근 확장국면은 주거용 건물 건설에 의해 견인된 측면이 있어 향후 건설업 경기는 주택 부문의 공급과 건설 여부에 좌우**
  -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2015년 주택 인허가 물량이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 부문의 공급이 급증

- **기존의 분양물량이 아직 남아있어 당분간 건설경기 하락 가능성은 낮음**
  - 주택준공물량은 일반적으로 주택인허가 또는 주택착공물량과 약 2~3년 시차가 존재

· 주택 인허가 및 착공이 급증하기 시작한 2015년 중반 이후 물량이 이어져 2017년 상반기까지는 건설경기 급랭 가능성이 높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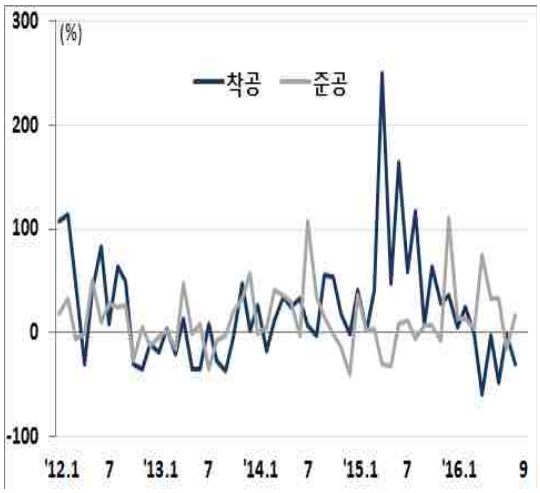
**- 최근 건설경기의 상승폭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고 2015년 중반 물량의 준공이 완료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2017년 하반기부터 건설업 경기 하락 및 경착륙 가능성이 상존**

· 주택수요 대비 공급이 서서히 늘어나며 이미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 부동산 공급을 조절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역시 주거용 건설 부문의 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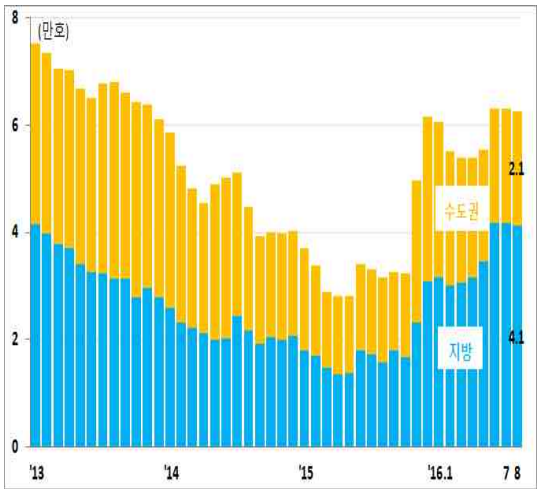
·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토목부문의 선행지표인 SOC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주거용 부문의 둔화를 보완하기 어려움

< 주택 착공 및 준공 증가율 추이 >




자료 : 국토교통부.
주 : 전년동기대비.

< 전국 미분양 주택 추이 >




자료 : 국토교통부.

## 4. 시사점

**○ 제조업 경기하강 장기화 방지, 서비스업의 성장성 회복, 건설업 경기의 연착륙 등이 필요**

**첫째, 전산업의 경기순환 뿐만 아니라 개별 산업의 경기국면 판단과 경기특징을 이해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정책 당국이 산업별로 상이한 경기국면과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 경기 전체의 부양 및 안정화 정책을 시행한다면 개별 산업에서 경기 과열 혹은 경기 급랭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산업별로 차이가 나는 경기국면의 위치와 향후 방향성을 고려하여 산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

**둘째, 장기화 되고 있는 제조업 경기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출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 제조업 경기를 크게 좌우하는 수출 회복을 위해 신흥시장 개척,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노력이 필요
  · 제조업이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내수 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을 보다 확대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개도국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포스트 차이나 시장의 발굴이 시급함
  · 또한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대기업·중소기업의 수출 공조 시스템구축,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통·물류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노력이 요구됨

**셋째,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서비스 업종의 성장성을 회복하기 위해 소비활성화 대책 및 서비스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정례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 정부의 확고한 방향성을 가진 경제정책 추진, 경제내 불확실성 제거 노력 역시 각 경제 주체들에 대해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가계들의 불안한 미래심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

- 제조업에 비해 열악한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 강화 필요
  ·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 고령화 대응형 서비스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완화, 의료 및 관광 등 고부

가가치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

-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연구 산출물과 기술에 대한 매입 보장 등으로 정부가 시장개설자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임
  · 서비스업 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연구개발투자가 미약하여 전문성 및 품질수준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서비스 수요의 해외유출이 유발되고 있음

**넷째, 경기 급락 가능성이 상존하는 건설업은 부동산 시장의 수급 안정을 통해 경기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주택 부문의 경우 경기의 큰 흐름을 변화시키는 인위적인 부양 대책이나 강도 높은 규제 등은 지양하고 장기적인 수급의 균형을 통해 안정화 유도
  · 시장 경기의 순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 건설 기업들은 향후 주택 부문의 공급 과잉, 지역별 양극화 심화 등 리스크에 대비
  · 현재 국내 건설업은 해외 건설 수주 부진, 저유가 장기화 등으로 국내 주택 수주의 의존도가 심화됨
  · 공급 과잉 문제, 지역별 양극화 심화 등 국내 주택 부문의 위험 요인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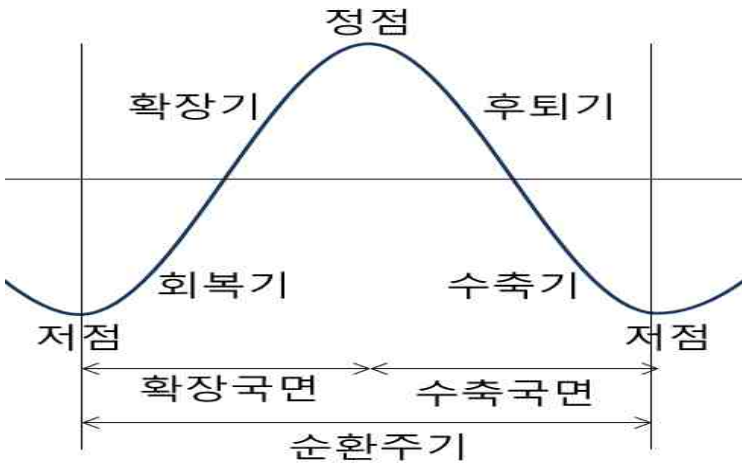
김천구 연 구 위 원 (2072-6211, ck1009@hri.co.kr)

## < 부록 > 산업별 경기 순환주기 추정

○ (분석방법) 경제활동별 GDP의 순환변동을 산출하여 산업별 경기순환(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침체기)을 분석

- 경기순환은 경기저점을 기준으로 다음에 발생하는 경기저점까지의 순환을 의미하며 회복기, 확장기, 후퇴기, 수축기로 구분
  · 경기순환은 경기저점에서 경기정점까지를 확장국면, 경기정점에서 경기저점까지를 수축국면으로 정의함

< 경기의 순환과정 >




- 산업별 경기의 변동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활동별 GDP를 장기 추세와 순환변동으로 구분
  · 산업별 순환변동은 장기 각 산업의 실제GDP와 추세GDP의 차이로 정의

- 산업별 경기의 순환변동은 H-P필터를 이용하여 장기 추세치를 제거하여 작성한 수치
  · H-P필터는 순환 변동 성분의 자승합과 추세 변동 성분의 자승합을 일정한 모수(평활화 계수)를 이용하여 합한 후 이를 최소화하여 장기 추세 변동의 시계열을 산출
  · H-P필터는 이론적 배경이 취약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계산상의 편리함과 경기 변동의 안정성 및 경기대응성 측면의 우수성으로 실증 연구에 활용